

전북교육청, 청렴도 재도약 의지

현장밀착형 청렴정책 지원·부패요인 사전 차단 선제적 대응 등

‘부패 zero 청렴 up’을 슬로건으로 도 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사전컨설팅 강화, 면책제도 활성화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펼쳐나가고 있다.

25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에 따르면 2020년 청렴정책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펼칠 수 있는 획기적인 전략 방안을 마련해 청렴 상위권 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방향

은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청렴정책 지원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 선제적 집중강화 등이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실행방안으로는 첫째, 청렴 교육 강화를 위해 청렴 교육관련 전문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단을 통해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확대하는 현장 밀착형 청렴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청렴교육 지원 결과 28개 기

관(학교)에 2007명이 청렴교육을 이수했다. 도교육청 소속 내부 청렴 강사가 도내 공립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지원하기에는 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도 122개 기관(학교) 4천여명에 청렴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집중관리를 위해 계약업체와 소통채널구축, 계약단계별 청렴문자 발송, 찾아가는 청렴 현장 컨설팅 실시 등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셋째, 청렴의지 표명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보급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부정정탁 금지, 청렴풍아리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송용섭 감사관은 “감사관실은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목표로 2020년에는 청렴 상위권 재도약을 위해 뼈를 깎는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군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경미)은 25일부터 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강의 운영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교실’ 주제 군산교육문화회관, 온라인 강좌

군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경미)은 25일부터 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강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4월 3일까지 ‘유튜브 크리에이터교실’을 주제로 4회차에 걸쳐 교육 영상으로 제공되며, 2020년도 제 1기 학생교육 수강생(초·중·고교 490여명)은 모두 학습할 수 있다.

강의 내용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첫걸음부터 활용방법까지 기초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회관 홈페이지(<https://lib.je.go.kr/gc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미 관장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기간이지만 배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도교육청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2010~2019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전북교육청-전북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교권·수업권 보호·근무여건 개선 등 52개 안건 합의

도교육청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2010~2019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은 2010년에 교섭·협의에 합의한 이후 보충협의 형식으로 교섭·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이기종 전북교총회장, 도교육청 국·과장 및 전북교총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교섭·협의 방법에

대한 사전 협의와 2020년 2월 17일 1차, 2월 25일 2차에 걸쳐 실무 교섭·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섭·협의에서는 교권과 수업권 보호, 학생 안전 강화,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강화,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을 주요 안건으로 원안수용 19개, 수정수용 33개 안건 총 52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시 학교장 승인에 따라 교사 자

가용 운행에 대한 학교 예비규정 마련 노력 ▲학급교육활동경비 학급당 최소 30만원 이상 반영 노력 ▲퇴근 후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교과서 주문 및 정산 업무 최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수능시험 감독교원이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도교육청과 전북교총 양측은 이번 교섭·협의 합의서를 바탕으로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장은성기자

“총채벌레 번데기 방제”

전북대-팜한농 ‘총채씩플러스’ 출시

전북대학교 김재수 교수팀(곤충 미생물공학연구실·농생물학과)과 (주)팜한농이 공동 개발한 총채벌레 번데기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총채씩플러스’가 출시됐다.

‘총채씩플러스’는 전북대와 팜한농이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 총채벌레 번데기 관리용 유기농업자재인 ‘총채씩’의 사용 편리성을 대폭 강화한 제품이다.

‘총채씩’은 지상부의 총채벌레를 방제하는 기존 방제방법에서 벗어나 정식 전 토양에 처리해 지하부의 총채벌레 번데기를 방제하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으로, 2017년 출시 이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총채씩플러스’는 정식 후 토양 관수처리로 총채벌레 번데기를 방제해 초기 밀도를 낮추주며, 잔류 걱정 없이 모든 작물에 수확 전까지 사용할 수 있어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작물보호제와 체계처리가 가능해 친환경 및 관행 재배 농업인 모두에게 유용한

제품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채소, 과수, 화훼 등 다양한 작물에서 총채벌레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총채벌레 방제 제품에 대한 저항성 발현이 심해 효과적인 방제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총채벌레는 칼라병(토마토 반점위조바이러스, TSWV)의 매개충으로, 칼라병은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확산 속도가 빨라 고추 수확을 포기해야 할 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에 총채벌레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총채씩플러스’의 주성분인 B. bassiana ERL836은 특이적으로 곤충에만 살충 활성을 보이는 미생물이다. 총채벌레 표피에 포자가 부착한 후 발아해 균사의 형태로 침입, 곤충의 면역기작을 무력화하며 치사시킨다. 현재 ERL836의 전체 염기서열 분석과 기능 유전자 연구가 완료돼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전북관광브랜드공연 ‘홍도1589’ 2주 연기

전북문화관광재단 정부 정책 동참... 5월 29일 개막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전북관광브랜드공연인 ‘홍도1589’의 공연 연습을 2주간 중지하고, 개막 공연도 2주 연기한다고 밝혔다.

전북관광브랜드공연은 5월 15일 개막을 앞두고 출연진과 연출진 등 20여 명이 연습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한 정부와 전북도의 조치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재단은 공연 연습에 참여하던 출연진과 연출진에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을 독려하고, 공연 연기로 인한 참여 예술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연장 정비 휴연 기간을 축소해 공연 참여 횟수를 보장할 계획이다.

홍승상 상설공연추진단장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부와 전북도의 적극적인 정책에 따라 심사숙고해 결정했다”며, “청정 전북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힘쓰는 모든 이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재단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홍도1589’의 공연 연습을 2주간 중지하고, 개막 공연도 2주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관광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관광브랜드공연 ‘홍도1589’는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5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수·목요일 오후 7시 30분과 금·토요일 오후 3시(주 4회)에 전북예술회관 4층 공연장에서 총 110회에 걸쳐 공연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상설공연추진단(063-230-7490, 749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